

[예상 등급 컷]

Q: 어떤 방법으로 등급 컷을 예상하였나요?

A: 1차 배포 시점에는 아직 이 시험에 관한 어떠한 데이터도 없으므로 출제자가 예상한 등급 컷을 기재하였습니다. 이 시험의 등급 컷은 문항별 예상 정답률과 역대 수능 정답률 및 등급 컷을 비교하고, 거기에 출제자의 자체적인 예상을 더해 산정하였습니다.

1등급 컷	44점
2등급 컷	40점
3등급 컷	34점
4등급 컷	27점
5등급 컷	19점
6등급 컷	13점
7등급 컷	10점
8등급 컷	7점
9등급 컷	0점

[출제자의 말]

이 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한 수능과 모의평가의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. 최근 평가원에서는 쉬운 시험이든 어려운 시험이든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시험지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2025학년도 수능이 딱 그러했습니다. 객관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지만, 중간중간에 낯선 문제들이 포진해 있어서 고득점자도 그렇게 쉽게 풀어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. 한편, 매우 어려웠던 시험으로 평가받는 2023, 2024학년도 수능 정치와 법 시험은 함정 선지, 지엽적이거나 출제된 적 없었던 개념의 선지, 복잡하거나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문제를 많이 배치하여 난이도를 높였습니다. 이 시험은 2021학년도부터 평가원이 출제한 정치와 법 시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경향성에 더해, 이러한 2023, 2024, 2025학년도 최근 수능의 경향을 최대한으로 반영하고자 노력했습니다. 물론 어떤 시험이든 절반 정도의 문제나 선지는 익숙한 개념과 유형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. 이 시험에서도 문항별로 완급 조절을 해가며 적절한 난이도의 완성된 모의고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.

실전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실전 연습을 위해 푸는 것입니다. 좋은 실전 모의고사란 실전인 수능 시험에서 수험생이 당황하지 않도록, 수능과 같은 경험을 미리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. 따라서 낯선 수능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단순 기출 변형에 그치지 않았고, 유의미한 실전 대비 및 실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게 어렵기만 한 문제는 배제하였습니다. 또한 모든 문제는 교과서, 역대 기출, 연계교재,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지 않은 법률 조항 내용 등에 근거하여 출제하였고, 평가원에서 충분히 출제할 만하거나 평가원식 논리에 부합하는 문항들만을 제작하였습니다. 따라서 이 시험의 모든 문제는 단순히 한 번 풀고 버릴 것이 아니라 철저한 복습을 할 것을 권합니다. 복습을 통해 놓치고 있었던 개념을 배워가거나 수능 시험에서의 행동 원칙, 주의 사항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.

정치와 법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도 이제는 옛말입니다. 별도의 학원 등록 없이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모의고사만 해도 100회 가까이 됩니다. 물론 그 모의고사들도 모두 훌륭하지만, 이 모의고사는 특별함이 있습니다. 모든 것이 단 한 세트의 시험지를 완성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설계되었다는 점. 단 한 세트의 시험지 안에 중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고, 엄청난 정성이 담겨 있으며, 많은 지혜가 모여있다는 점. 평가원의 수능과 닮은 부분입니다.

[문항별 코멘트, 정답률 데이터 등]

- 추후 공개 예정